

〈내부자들〉에 나타난 미학적 반복 구조와 변주의 의미

A study on the meaning of aesthetic repetition structure and variation in <Inside Men>

김남석*

국문요약 영화 〈내부자들〉은 현실 정치와의 연관성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영화이다. 많은 이들이 영화 〈내부자들〉에서 묘사된 정·재계와 언론의 유착 관계나, 성 접대 형용 장면 혹은 정치 강파와 검찰 권력의 풍경에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부자들〉은 관객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영화로 남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은 보류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내부자들〉이 지니는 영상 미학적 가치나 영화 문법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한계로 남아있었던 〈내부자들〉의 미학적 특징과 영화적 개성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내부자들〉이 비단 한국의 정치나 현실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텍스트로 부상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유한 미학적 구조로서의 반복의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영화 작품으로 남을 수 있었다.

핵심어 〈내부자들〉, 성 접대, 반복, 변주, 구조

- 차례**
1. 문제의 제기: 현실의 비판과 반복의 미학
 2. 고문과 공간: 동형의 공간과 밀실의 차이
 3. 손의 대용, 칼/펜의 변용: 칼의 운명과 처벌의 원리
 4. 생존의 의미, 욕망의 거리: 권력과 정치의 원근 감각
 5. 반복의 구조와 의미의 변주
 6. 〈내부자들〉에 나타난 반복의 이유와 변주의 효과

영화 속 사건이 재현되거나 그 대사가 등장하는 옷지 못할 참극도 생겨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와 현실, 작품과 관객, 텍스트와 동시대인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 영화는 깊이 있게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 늘 현실 세계의 문제와 영화 내부의 묘사 사이의 상관성이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영화 미학적 성과나 규칙에 관한 접근은 제한되기 일쑤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자들〉에 나타나는 주요 모티프를 중심으로 형식 미학적 분석을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의 묘사와 공간의 변주 효과에 나타난 효과의 의미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연구는 이러한 미학적 특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내부자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범죄 영화 혹은 사회고발 장르의 관점에서 시행되거나,¹ 특정 인물

1. 문제의 제기: 현실의 비판과 반복의 미학

영화 〈내부자들: 디오리지널〉(이하 〈내부자들〉)은 충격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묘사로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이었다. 원작이었던 만화 〈내부자들〉부터 정치적 음모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고, 영화 내에 묘사된 장면과 사건은 관객과 대중들에게 인식적 자극을 가한 바 있었다.

1 정민아, 「〈내부자들: 디오리지널〉, 범죄영화 장르의 진화와 폭력의 서사화 방식」, 『현대영화연구』 (12-1), 현대영화연구소, 2016, 107~131쪽; 이지호, 「사회고발 장르 영화의 의미구성과 사회 문화적 의미: 영화 〈내부

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거나,² 윤태호의 원작 웹툰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제기되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내부자들〉이 지니는 현실 반영의 측면에 은근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 고유의 특징과 미학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을 비추는 반영태로서 영화적 기능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⁴ 그리고 현실의 상황과 영화의 묘사 사이의 일치성과 관련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내부자들〉과 현실 정치와 권력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 결론을 피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 자체로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지닌 사회 비판 기능과 현실 진단 효과는 분명히 이 영화의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어두운 면과 정치의 가려진 면 그리고 한국의 모순된 면을 증언하는 영화의 힘이 반드시 현실 일치성이나 정치 비판력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부자들〉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충격보다는 이를 영상 미학적으로 발현하는 미학과 문법에서 파격적인 효과를 갈무리한 작품이었다. 현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이러한 서사 모티프나 영상 이미지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시행되지 못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동안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 공간 모티프

혹은 주요 밀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영화 텍스트 내에서 이러한 모티프/이미지의 배치와 배열 상황을 살펴보고, 서사상 반복 구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 의미와 독자적 가치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2. 고문과 공간: 동형(同形)의 공간과 밀실(密室)의 차이

〈내부자들〉에서 안상구와 조 상무는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안상구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은 항구 컨테이너 기지에 마련된 아지트였고, 조 상무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은 미래자동차 세력의 숨은 안가(安家)였다. 두 공간은 천장과 벽으로 사방이 막힌 곳이었지만, 한쪽으로는 문이 배치되어 있고 그 문에서 맞은편 벽까지 꽤 긴 복도를 갖춘 밀실이였다. 밀실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을 장악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두 밀실은 공히 고문을 자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안상구는 미래자동차 비자금 담당(재무팀장) 문일석을 고문하는 장소로 컨테이너 아지트를 선택했고, 조 상무는 비자금 서류를 복사해서 빼돌린 안상구에게 상해를 입히는 장소로 안가를 사용했다. 이후 조 상무의 안가와 안상구의 아지트는, 안상구의 부하 박종팔을 고문하는 밀실로 다시 사용된다.

	순서	아지트	안가	신체 위협	핵심/매개 요소
첫째 상	첫 번째 고문	안상구가 문일석을 고문		간접적 (폭력 위협)	가해자인 안상구가 피해자로 전락 (주체에서 객체로 의 전락)
	두 번째 고문		조 상무가 안상구를 고문	직접적 (신체 절단)	
둘째 상	세 번째 고문		조 상무가 박종팔을 고문	간접적 (절단 위협)	박종팔을 고문하는 안상구와 조 상무 (객체에서 주체로 의 부상)
	네 번째 고문	안상구가 박종팔을 고문		직접적 (폭력 행사)	

이러한 두 공간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반복 구조를 지닌다. 안상구가 고문자의 위치에 놓인다는 점이다. 조 상무

자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99쪽.

2 서은원·배일현, 「에니어그램 유형으로 보는 영화 캐릭터들의 갈등에 대한 연구: 〈덕혜옹주〉, 〈내부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16-3), 한국문화산업학회, 2026, 177~186쪽; 조수진, 「영화텍스트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속 여성: 영화 〈추격자〉, 〈소셜포비아〉, 〈내부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16-6), 한국영상학회, 2018, 45~57쪽; 김수정, 「악역(惡役)의 캐릭터 특징 분석: 흥행한국영화 〈암살〉, 〈내부자들〉, 〈베테랑〉,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14-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8, 42~56쪽.

3 이지영, 「윤태호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확장성 연구: 〈미생〉 〈내부자들〉의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78쪽.

4 이대현, 「기자에 대한 영화의 두 시선: 〈내부자들〉과 〈1987〉」, 『신문과 방송』(57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104~107쪽.

역시 고문자의 위치를 점유한다. 안상구는 고문자와 피고문자를 모두 담당하며, 조 상무와 안상구는 공히 박종팔을 고문한다. 이러한 구조는 네 번의 밀실 고문에서 유효한 차이를 만든다.

우선 안상구는 문일석을 고문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 박종팔을 고문할 때는 강력한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 반면 조 상무는 안상구를 고문할 때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 팔을 찢어내는 잔혹함을 보이고, 박종팔을 고문할 때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안상구는 문일석을 고문할 때 망치질 위협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만, 조 상무는 안상구를 고문할 때 손을 절단하지만 원본 비자금 파일을 얻지는 못한다. 조 상무가 박종팔을 고문할 때는 손을 절단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안상구의 거취를 알아내지만 안상구는 배신한 부하 박종팔을 직접 폭행해도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다.

고문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정보나 물품을 얻기 위한 폭력 혹은 위협 행위이지만, 컨테이너 아지트와 미래자동차(파) 안가 측은 직접적인 폭력을 정보나 물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원하는 정보나 물품을 간접적인 위협을 통해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위해(절단이나 폭행)은 감정적 분풀이나 처벌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즉,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고문과 상대를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처벌은 분리된 형태로 자행되었고, 아지트와 안가는 이를 병행 분리해서 시행하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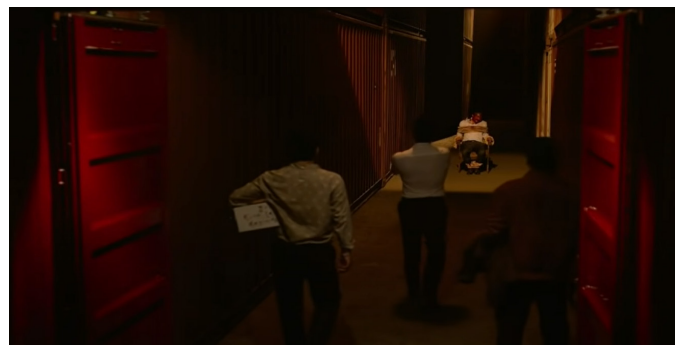
이로 인해 컨테이너 아지트와 미래자동차 안가는 각각 두 번씩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했고, 첫 번째 쌍은 아지트→안가의 순서로, 두 번째 쌍은 안가→아지트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 쌍의 흐름에서는 안상구가 매개요소를 맡았고, 두 번째 쌍의 흐름에서는 박종팔이 동일상대를 맡았다. 이에 따라 안상구가 가/피해자를 두루 경험하는 양상과, 안상구와 조 상무가 동일하게 박종팔의 고

문자로 반복되는 양상이 구현될 수 있었다.

한편, 밀실의 유사성과 반복 구조를 통해, 두 폭력 조직의 보스가 보여 주는 공간에 대한 지배력은 대단해서 그 공간에 갇힌 희생자는 짙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선, 안상구가 붙잡은 문일석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보자. 안상구는 제법 긴 공간을 위엄있게 다가가는데, 그 걷는 거리와 걸음걸이가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분위기의 정체는 공포감이다.



문일석이 갇힌 아지트로 들어오는 안상구 (그나마 빛이 있는 외부)



문일석 앞으로 걸어가는 안상구 (빛이 거의 없는 내부)

안상구는 부두의 좁고 긴 통로를 걸어 아지트의 문을 연다(좌측 화면). 아지트 안쪽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 열린 문으로 정장 차림의 안상구가 보인다. 안상구는 조명을 뒤로 하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온다. 그의 뒤에는 안상구의 직원들이 대기해 있고, 도열한 그들의 움직임은 공포심을 저절로 자아낸다.

공포심을 조성하는 방식은 걸음과 거리이다. 제법 긴 거리를 걷는 안상구의 직원들의 모습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고정된 피고문자에게는 긴 시간이자 깊

은 고통을 체감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안상구가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제거하자, 드디어 고문이 시작되었다.

밀실(고문실)에서 풍겨 나오는 공포는, 의외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신체가 썰리고 불구가 되는 결과를 도외시한다고 해도, 안상구와 조 상무가 각각 피해자에게 걸어가는 거리만큼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내부자들>은 이 거리를 분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조 상무의 등장도 이러한 거리(감)를 활용하고 있었다.



밀실로 들어가는 조 상무 (내부의 빛과 바깥의 어둠)



안상구에게 걸어가는 조 상무 (환한 내부로 걸어들어온 바깥 어둠)

카메라는 밀실로 들어가는 조 상무의 등을 포착하면서, 그 목적지에 있을 누군가를 암시한다. 그 누군가는 안상구였고, 직전까지는 한 팀이 되어 일하던 일종의 동료였지만, 조 상무가 상대를 처벌하기로 마음먹자, 안상구는 그냥 한낱 고문 대상자에 불과했다.

아지트와 밀실 장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이다. 조 직의 중간 보스가 구금된 상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포심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단일 사건을 보여 준다. 부두 아지트에서는 가해자가 안상구였고,

안가 밀실에서는 피해자가 안상구라는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두 고문 사건은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차이점과 함께 주목할 변화가 있다. 아지트에서의 고문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안상구가 위치한 세계가 숨겨진 곳, 어두운 곳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조 상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하는 차이를 보인다. 조 상무가 위치한 세계는 당시로서는 환한 곳, 알려진 곳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안상구는 어둠의 세력에서 일하는 ‘깡패’였고, 조 상무는 대기업의 상무로 일하는 일종의 공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위치는 곧 이율배반적인 면모를 자아낸다. 안상구는 음모를 밝히고 야합과 결탁을 밝혀내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조 상무는 음모를 꾸미고 야합과 결탁을 보호하는 범죄자로 남을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3. 손의 대응, 칼/펜의 변용: 칼의 운명과 처벌의 원리

<내부자들>에서는 칼에 대한 대사들이 의외로 많다.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전 검사는 자신의 후배에게 신정당 대권 후보 장필우 사건을 맡은 검사가 누구인지를 묻으면서 ‘칼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들 대신 사건을 수임하여 장필우를 무너뜨릴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 칼잡이라는 표현은 <내부자들> 여러 곳에서 변주되어 나타난다. 첫 번째 칼잡이는 안상구였다. 안상구는 오프닝 기자 회견에서 자신의 손이 절단되어 의수 상태임을 폭로하는데, 이때 안상구의 의수는 그가 누군가의 칼에 의해 상해를 입은 상태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안상구 역시 칼과 유사한 도구를 든 적이 있었다. 문일석을 고문할 때 그는 낫과 망치를 들고 문일석에게 다가가

다 마지막에 낫을 버리고 망치를 놓는다. 그리고 이 망치로 문일석을 조준한다. 안상구가 들었던 무기 중에는 칼은 없었지만, 그는 나중에 칼을 사용하여 이강희의 손을 자른다. 안상구의 손을 자른 이가 조 상무였고, 그 조 상무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이가 이강희였다고 할 때, 이강희의 손절단은 일종의 복수 행위였다. 이 전말을 살펴보면, 손과 칼 그리고 펜의 이미지가 한데 엉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를 탈출해서 찾아온 안상구에게 이강희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한다. “원한을 품고 살면, 반드시 자신에게 칼이 돌아온다는 걸, 잊었냐?” 하지만 안상구는 이강희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저질러 온 해악과 모략 그리고 배신 행위를 열거한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이강희는 기습 공격을 선택하는데, 이때 그가 휘두른 무기는 연필이었다. 글을 써야 할 연필을 비수로 바꾸어 안상구를 공격한 것이다. 문제는 안상구가 연필 따위의 공격에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고, 안상구의 오른팔은 이미 잘린 이후이기 때문에 오른팔 공격은 더더욱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강희가 비수로 사용한 연필



안상구가 절단 도구로 사용한 도끼

조국일보 주간실에 놓인 두 개의 무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한다. 전직 정치깡패이자 현 피의자인 안상구는 조 직폭력배에 걸맞은 무기인 도끼를 들고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는 이강희는 자신의 이성적 무기였던 연필을 물리적 비수로 사용할 작정이다. 각자의 무기이자 손을 들고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는 비장함을 넘어 경건함마저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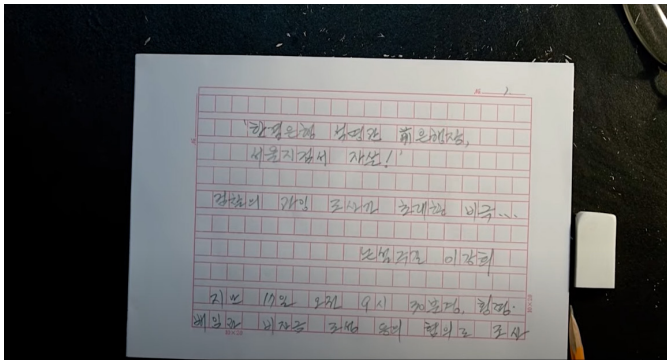
애초부터 물리적 폭력 수준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상당하다. 폭력 조직에서 성장한 안상구의 완력과 기술을 이강희가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상구는 이강희의 수하로 있어야 했고, 이강희의 계략에 빠져 손발 같은 수족과 조직은 거의 상실한 상태로 버텨야 했다. 무엇보다 실제 손도 없는 상태였다.

두 사람의 격투는 싱겁게 끝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이강희 역시 힘없이 부러진 펜과 무기력하게 절단된 손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강희가 한 말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강희에게 돌아온 칼(도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칼이 다른 이들에게 심어준 원한으로서의 펜(연필)을 부러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강희의 또 다른 펜인 손을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이 살벌한 전투에서 각별하게 부각된 점은, 처벌로 잘린 사이비 언론인의 손과 그 손이 주도했던 펜의 용도였다. 그 이전까지 이강희는 자신의 펜을 칼처럼 휘둘렀다. 그는 노동자의 파업을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선전 선동으로 몰아붙였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안상구의 노력을 살인과 성폭행의 범죄에 묻어버렸다. 피의자를 유도하고도 그 책임을 검찰의 탓으로 돌리는 교묘한 도구로 삼았다. 그의 펜은 재벌에게 아부하고, 정치권을 조종하고, 진실을 덮고, 한 사람을 모략하여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칼로 사용된 지 오래였다. 이미 그의 왜곡된 펜(연필)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세상과 민중과 상대를 해치는 칼로 활용되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깡패의 칼(도끼)이 문인의 칼을 폐기한 셈이다.



강자에게 아부하며 재벌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강희의 펜(글)



세상을 조종하며 사익을 챙기는 이강희의 펜(글)

이강희의 손이 잘린 순간, 그렇게 다시 잘린 바 있었던 또 다른 손의 존재가 상기된다. 이강희는 자신에게 대드는 안상구의 손을 자른 원흉이었고, 그럼에도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안상구는 자신을 무너뜨린 이강희의 손을 자른 집행자였다. 민중의 재산과 권익을 탈취하고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도모한 안상구의 손도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교묘하게 민중과 세상을 속이고 자신과 조직을 보호한 한 문인의 손도 당연한 처벌 대상이었다. 아니, 강패의 손이 처벌 대상인 것처럼 비열한 문인의 손도 처벌 대상이어야 했던 것이다.

4. 생존의 의미, 욕망의 거리: 권력과 정치의 원근감각

4.1. 정치와 생존의 쌍곡선, 죽음에서 일어남

이강희에게 생존은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데에서 출발한다. 조국일보라는 보수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강희는 자신의 칼이자 힘인 글을 도용하고 계락을 사용한다. 보수

언론 정객들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편집 회의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목표는 조국일보의 사내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켜 보수 진영을 통제하는 작업이었다.

이강희는 생존에 대해 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편집국장에게 향하는 그의 발언에는 다음과 같은 ‘생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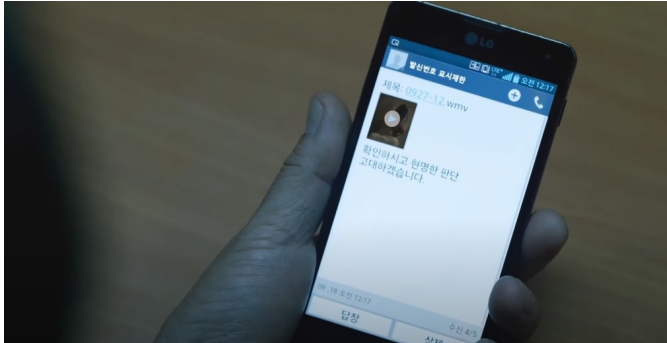
이강희: “장필우가 (감방에:인용자) 들어가면은 미래차도 퍼지는 거야, 물론 오 회장이 엔진 갈아 끼고 다시 달리면 되겠지. 근데 한 번 퍼진 차를 누가 타겠어? 우리는 장필우의 생존이 아니라 미래차의 생존을 지키는 거야. 우리의 생존을 위해”

보수 논객 이강희의 머릿속에는, 정치라는 복잡한 구도는 재벌이라는 현실적 힘과 연계된 일종의 결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는 자신이며, 자신의 위치는 재벌(미래자동차)과 언론(조국일보)의 공생을 위하여 그 연계를 도모하고 조율하는 위치이다. 그러니 그 힘과 상호 관계 그리고 조율자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은 생존에 대한 침해이자 방해일 수밖에 없다.

영화 <내부자들>은 내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들의 연계를 별장에서의 결탁으로 시각화하였다. 별장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아마 처음에는 이강희였지만, 이후에는 검사에서 물러난 장필우였고, 그다음에는 자리가 위태로운 민정수석이었으며, 그 언젠가에는 한결은행 (전) 지점장 석명관도 포함되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또 다른 칼잡이로 부상한 이상훈까지 그 초대이 연장되었다.

그들은 생존을 빌미로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언론인은 언론인의 자리, 검사는 검사의 자리, 회사원은 회사원의 자리—을 넘어 재벌과 권력과 언론이 모여드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생존을 이유로 상호 연대하여 더 큰 이익과 더 큰 권력으로 도모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

의 결탁은 결국 ‘생존’으로 압축되는 ‘권력’의 향연을 가능하게 했다. 생존은 결탁이었기에 결국에는 잊이기도 했다.



조사받는 석명관에게 전달된 동영상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공모 결탁의 최후

그들은 생존을 위해 뭉쳤지만, 나중에는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오현수는 비자금 문제로 다시 입원해야 했고, 장필우는 홀로 남아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손까지 잘리면서도 결탁을 옹호했던 이강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공모자들의 결탁이 불러올 결과는 미리 보여 주는 사건이 석명관의 자살이었다.

정계, 재계, 그리고 언론계에서만 결탁이 생존의 논리는 아니었다. 야권에서 활동하는 재야 정치인들에게도 생존은 중요한 문제였고, 그 생존을 위한 결탁 역시 이루어졌다. 야권으로 대변되는 대항 정치 세력에서도 생존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때 우장훈의 대학교수였던 한 야권 정치인은, 국회의원의 현실적·궁극적 목표가 집권 여당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러한 단정으로 인해 생존은 극도로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야권 정치인의 생존 개념은 우장훈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한 영향은 과거 이강희가 재야 운동으로서 민주 운동을 했다가 보수 언론 정객으로 변신한 계기 역시 상상하도록 만든다.

정치는 재야 정치인 그리고 야당 당원들에게 권력을 쥐는 것이라는 그의 언질은, 생존의 의미가 비단 정/재/언론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킨다. 우장훈은 이러한 야권 정치인의 생존관을 이용하여, 안상수의 기자 회견을 성사시키고, 자신 역시 안상수를 공모하여 장필우와 결탁 세력을 축출하는 작업을 결행한다.

안상수가 지적한 대로, 그리고 우장훈 인정한 대로, 우장훈은 보다 높은 자리를 향해, 그리고 보다 주목받는 업적을 위해, 장필우를 잡아야 했다. 대검에 가야 하고, 출세를 해야 하고, 울분과 포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필우 세력의 결탁을 들추어내야 했다. 그러한 우장훈의 노력과 모색은 또 다른 결탁과 공모 그리고 생존을 겨냥하고 있었다.

4.2. 권력과 정치의 원근법, 다가옴과 물러남

이강희의 출현 장면은 한 건물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강희는 현재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신문사 논설주간이지만, 그의 시야는 대한민국을 최종 조율하는 한 건물에 꽂혀 있다. 그의 내밀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최종 목적지를 겨냥하는 시선이었다.

전화를 받는 이강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다. 그가 통화를 하고 있는 현안부터 그가 언론사 주간이 된 궁극적인 이유까지 포괄하고 있는 시선이었다. 화면 속에서 청와대는 멀리 있었지만, 분명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접근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이강희가 물러나면 카메라는 청와대를 향하여 다가간다. 화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감을 보여 주기라도 하려는 듯, 그 거리를 좁히며 청와대를 향하여 다가간다.

화면 안에서 커지는 청와대의 존재감은, 그 뒤를 받치는 삼각산의 육중함과 함께, 권력을 향한 이강희의 욕망과 그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권력을 지향하는 이강희의 시선



시선으로 다가오는 청와대의 모습

국정 운영의 중심이며 권력의 최고 정점인 그곳은 가장 공정해야 할 언론의 주간에게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이었지만 이강희는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요처였다. 적어도 그는 그 중심이자 정점을 향한 발걸음에 주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통화 내용은 여론을 잠재울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필력으로 이 방법을 실현한다.

이강희가 위의 전화를 받는 시점은 안상구의 기자 회견이 진행된 직후였기 때문에, 이강희로서는 비자금 파일이 공개되면서 자신과 결탁 세력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어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강희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해야 한다.

생존의 위기에서 이강희는 다른 공모자들을 활용한다. 문일석을 매수해서 비자금 파일 자체를 부인했고, 폭로자

안상구는 파렴치한으로 내몰아 증거 능력을 소거했다. 나아가서 검사 우장훈을 스폰서를 두고 로비 자금을 받은 비리 검사로 만들어서, 수사 능력과 증거 효력을 일거에 삭제하고자 했다. 이강희의 치열한 생존 능력이 벌인 교란 행위였는데, 생존을 위해서 각종 생명체가 벌이는 일종의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강희의 생존은 단순 생존이기보다는 자신의 근무처인 조국일보의 세력 확장(언론 장악력)과 재벌과의 연수(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래의 총리 자리로 상징되는 출세 욕구(정치적 지향)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생존이었다.

하지만 주도면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일 위기를 모면한 바 있는 이강희로서도 자신의 팔이 잘리고 점차 자신의 수족이 옥죄어 오는 내면의 위기는 감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우습게 알던 안상구와 자신이 굴복했다고 믿었던 우장훈에게 예기치 못한 일격을 받고, 처음에는 육체적 손실을 잃고, 다음에는 정치적 수족을 잃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그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빠져든 셈이다.

청와대를 향한 카메라 워크는 이러한 이강희의 생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권력을 향한 집착이 화를 불렀고, 이강희의 명분과 초심을 망가뜨렸고, 마지막에는 손과 자유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청와대로 다가가는 카메라 워크와는 달리 국회(의사당)에서 멀어지는 카메라 워크로 상징된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시야에는 이강희와 함께 생존을 위한 결탁을 결행했던 장필우가 머물고 있다.

5. 반복의 구도와 의미의 변주

5.1. 폭력 행위의 반복과 가/피해자의 전도

〈내부자들〉에서는 폭력 행위의 반복적 적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안상구는 조 상무에게 간단하게 제압되는

데, 그때 안상구가 돌아선 틈을 타서 조 상무가 뒤통수를 돌로 내려쳤기 때문이다. 안상구는 자신에게 채홍사 역할을 그만 시키라고 요구했다가, 조 상무의 반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안상구가 건달 조직의 우두머리이고 다년간 암흑가에서 활동했다고 할 때, 이러한 제압 방식은 다소 허무하다고 해야 한다.



최초의 제압(안상구를 후려치는 조 상무)



두 번째 제압(안상구를 다시 후려치는 조 상무)



의외의 역습(조 상무를 후려치는 우장훈)

하지만 이러한 제압 방식은 두 번째도 효과를 발휘한다. 안상구의 수하 박종팔을 잡은 조 상무는 안상구를 다시 붙잡기 위하여 출동했다. 조 상무의 수하들은 안상구를 붙잡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안상구가 지친 틈을 타서 조 상무는 다시 안상구를 제압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때 사용한 방식도 뒤통수를 기습하는 방식이었다. 안상구의 입장

에서는 두 번이나 뒤통수에 기습을 받고 제압되는 수모를 당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 기습에는 변수가 첨부된다. 어느새 나타난 우장훈 검사가 조 상무의 뒤통수를 화분으로 내려쳐 기절시키고, 안상구를 다시 확보한 셈이다. 우장훈으로서는 다잡은 문일석으로 안상구에게 빼앗기고, 다시 확보하려던 안상구를 놓쳤지만, 결국에는 조 상무의 손에서 안상구를 빼내는 데에 성공한 셈이다. 안상구/조 상무/우 검사는 이렇게 잡고 잡히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제압하는 방식은 하나같이 기습이었으며, 그것도 뒤통수를 때리는 타격이었다.

한국 말에는 ‘뒤통수를 치다’는 말이 ‘배신을 저지르거나 의표를 찌르는’ 공격을 의미한다. 비록 안상구는 우 검사의 뒤통수를 친(때린) 적은 없지만, 문일석을 확보할 때와 화장실에서 도망칠 때 우 검사의 의표를 찌르고 원하는 바를 이룬 바는 있었다. 조 상무 역시 안상구의 의표를 찔러, 완력이 강한 조직폭력배를 두 번이나 손쉽게 제압했다. 물론 두 번째 제압 과정에서는 다시 안상구를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 직전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뒤통수를 치는 작전은 유효했다고 해야 한다.

우 검사는 문일석과 안상구를 놓치고 아직은 오현수-이강희-장필우에게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두 번이나 자신을 골탕 먹인 안상구를 확보하면서 반격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서로서로 뒤통수를 치면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이러한 계락을 보여 주기 위하여, 뒤통수 타격이라는 행위와 이를 형상화 한 장면이 등장했던 것이다.

반복의 구조와 장면의 연계는 취조 장면에서도 재현되었다. 특히 반복의 구조는 취조 장면이 지니는 내적 의미를 드러내는 주요한 미학적 전략으로 작동한다. 붙잡은 문일석을 취조하는 안상구와 역시 붙잡은 안상구를 취조하는 조 상무는 기본적으로 동일 사건과 유사 장면을 연출한다. 장소가 아지트이자 밀실이라는 점도 유사하고, 상

대를 고문하는 자가 평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유사하다. 고문을 자행하고 결과를 얻는다는 점도 유사하다.

특히 고문 광경에서는 두 취조 행위의 유사성이 반복되면서 동시에 그 변주 효과도 동반된다. 먼저, 문일석을 고문하는 안상구의 취조 광경을 다시 보자. 안상구는 긴 통로를 걸어 들어가면서 긴장감을 잔뜩 조성하고 있다. 이때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고, 와이셔츠를 살짝 거둔 상태이다. 가벼운 발놀림과 흥겨운 리듬이 그의 걸음과 함께 울려 나온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 있는 망치는 이와 대비되는 육중한 무게와 잔인함을 보여 준다. 가벼운 움직임과 육중한 무기가 자아내는 기묘한 불일치는 상대, 즉 고문 대상자의 공포심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유발한다.



평범함을 자아내는 안상구의 얼굴



무심함을 자아내는 조 상무의 행동

노래를 그친 안상구는 다짜고짜 망치를 휘두르지만, 의외로 망치는 문일석의 몸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헛손질만으로도 문일석은 전의를 잃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다. 안상구의 등장과 콧노래 그리고 헛손질은 전체적으로 평범한 얼굴로 진행되지만, 그 효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문일석은 안상구의 무심함에 질려 더욱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했고, 끈질기게 지키려고 했던 비자금 파일을 넘겨주어야 했다.

구도가 바뀌면, 이제 안상구가 붙잡혀 있다. 안 상구를 붙잡은 조 상무도 가벼운 발걸음이다. 그런데 조 상무에게는 무기도 없고 표정도 없다. 처음에는 이러한 조 상무에게서 공포심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곧 그는 돌변하고, 쇠파스로 신체를 절단하는 잔인함을 무표정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두 장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 빛과 어둠의 위치가 반대라는 점이 그 차이이고, 피해자에게 가하는 신체적 상해 유무도 그 차이이다. 조 상무는 안상구의 신체를 절단하여 기동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으며, 고문 이후에도 여전히 감시하며 상대를 폐인으로 만들었다. 반면, 문일석 역시 안상구 패거리에게 고문을 받고 신체적 상해를 입긴 했으나 안상구로부터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신체 불구가 될 정도의 결정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빛과 어둠의 비교와 차이로 설명한다면 안상구는 비록 어둠의 세력에 기행하고 있지만 점차 그 어둠을 나와 빛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행보를 보이지만, 조 상무는 거꾸로 표면적으로는 빛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어둠을 지향하면서 결과적으로 광명과는 다른 행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 전개와 인물 변화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안상구가 비자금 폭로와 정치·경제·언론의 유착을 밝히는 결단을 내리지만, 조 상무는 그러한 세력을 비호하며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안상구에게는 조명을 뺏고, 조 상무에게는 조명을 집중하는 대비 효과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차이도 내재한다.

〈내부자들〉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다시 이어지는 두 고문 장면에서도 변주하고자 한다. 미래자동차와 장필우에게 복수를 꿈꾸는 안상구는 박종팔을 동원하여 장필우 세력에 도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은 발각되고 박종팔

이 붙잡힌다. 이 박종팔은 조 상무에게 끌려가, 안상구 때와 마찬가지로 잔혹한 형벌(신체 절단)에 처할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박종팔은 안상구 체포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위기를 넘긴다.

박종팔의 배신으로 인해 안상구는 위기에 처하지만, 이를 모면한 이후에 자신을 배신한 박종팔을 붙잡아 들인다. 그리고 문일석 고문 때와 마찬가지로, 부두 아지트로 향한다. 그곳에는 붙잡혀 와 이미 고문받고 쓰러져 있는 박종팔이 있다. 안상구는 문일석 때와는 달리, 다짜고짜 박종팔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문일석에게 여유 있는 무표정으로 압박하던 상황과 자못 달랐다.

이러한 변화는 한 가지 차이에 의해 생겨난다. 안상구의 신체를 다짜고짜 절단했던 조 상무가 박종팔의 신체를 절단하지 않은 이유는, 안상구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조 상무에게는 다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종팔에게 당장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것이고, 안상구에게는 다음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일석에게 안상구가 헛손질(망치질)만 한 이유 역시 그다음 목적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잡혀 온 배신자 박종팔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한 이유 역시 그다음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상구나 조 상무는 다음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행해야 했을 때는 처벌(상해)이 아닌 고문을 선택했고, 그다음 목적을 도외시하거나 형벌 자체가 목적일 때는 고문이 아닌 처벌을 시행했다.

이처럼 <내부자들>에서 고문과 취조 그리고 상해와 처벌은 동일 맥락하에서 진행되었다. 무언가를 더 원하는 것(그다음 정보)이 있는 이들은 상대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위협을 가하고자 했고, 상대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적 위해 행위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 경우는 처벌에 가까웠다.

이러한 맥락의 반복과 변주를 살펴보면, 조 상무는 안상구에게 더 이상 비자금 파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있다

고 해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상구의 손을 자르고 정신병원에 구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안상구는 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상구는 비자금 파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손이 잘리는 처벌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복수를 도모하였다.



이강희 계략으로 손을 절단당한 안상구



이강희 면전에서 손을 절단하는 안상구

처벌/취조의 논리에 의거하면, 안상구는 이강희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해야 했다. 신문사 주간실에서 안상구가 이강희의 손을 자른 것은 동일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강희는 안상구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장필우라고 증언한 이후, 그리고 해당 증언을 녹취한 이후, 안상구는 이강희의 손을 자른다. 녹취를 얻었고 그 녹취가 비록 법률적으로 정당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안상구의 계획 속에서 이 녹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안상구는 녹취 이후에는 더 이상 이강희에게 얻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5.2. 기자 회견의 반복과 대칭 위치의 구조

〈내부자들(디 오리지널)〉에는 대략 네 번의 기자 회견이 등장한다. 처음은 안상구의 기자 회견이고, 다음은 장필우의 기자 회견이다. 그다음은 이강희의 기자 회견이고, 마지막은 우장훈의 기자 회견이다.

이중 〈내부자들〉에서 강렬한 인상은 남기는 기자 회견은 처음과 마지막 기자 회견이다. 두 기자 회견은 영화의 시작과 마무리와 관련이 깊다. 처음 기자 회견은 오프닝 시퀀스에 배치되어 〈내부자들〉의 서사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기자 회견은 클로징 시퀀스에 배치되어 〈내부자들〉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두 기자 회견은 서사 전개와 사건 종결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단 두 기자 회견은 작품의 오프닝과 클로징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대칭 구조로 인해 모티프의 반복이라는 비중 있는 구조적 특성을 성립시킨다. 여기에 두 기자 회견은 의미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간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선 오프닝 시퀀스에 배치된 안상구의 기자 회견을 살펴보자. 이 기자 회견은 세간에 미래자동차 비자금 문제가 공개되어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시점에서 2년 여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과거의 비리뿐만 아니라, 2년 동안의 사건을 일단락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부자들〉에서는 오히려 지난 사건과 미래 사건을 추동하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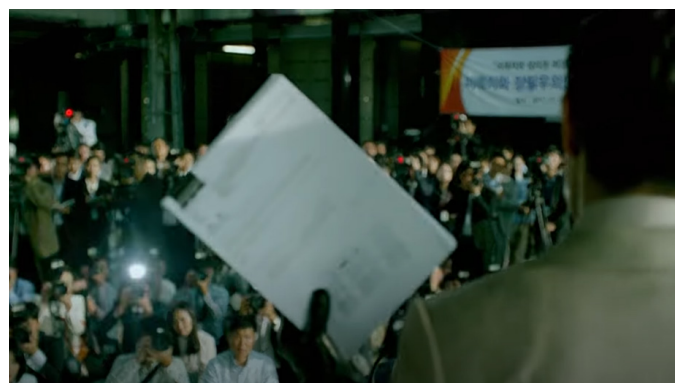
안상구가 미래자동차 비자금 의혹을 담은 기밀문서(파일)를 폭로하는 기자 회견을 열자, 자신이 미래자동차와 관련이 없다는 공표를 담은 장필우의 기자 회견이 뒤이어 열리고, 장필우와 함께 의혹을 받던 이강희가 검찰 앞에서 약식 기자 회견을 열어 이를 무마하자, 결국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장훈의 기자 회견이 열린다. 이러한 기자 회견 과정을 종합하면, 〈내부자들〉은 기자 회견에 의한 폭로와 방어, 역습과 마무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투장을 방불하게 한다.



무죄를 주장하는 장필우의 기자 회견



언론을 조작하는 이강희의 기자 회견



조직폭력배 안상구의 기자 회견



검사 우장훈의 기자 회견

두 기자 회견은 같은 화제를 두고, 한 사건에 대한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자 회견이다. 안상구가 미래자동차 불법자금을 통해 오 회장-이 주간-장필우 대권 후보의 유착과 비리를 지적했던 것처럼, 우장훈 검사 역시 미래자동차-

조국일보-비리 정치인의 야합과 불법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안상구의 폭로와 회견에서는 안상구의 신분이 전직 깡패라는 인식으로 인해, 그의 증언마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는 점이다. 기자 회견 직후 안상구는 모략과 술책에 의해 살인자이자 성폭행자로 전락해 버렸고, 이에 따라 그의 증언과 증거가 인멸되고 왜곡되는 결과가 양산되고 말았다.

이에 우장훈은 그들-재벌과 언론과 정치 세력의 연합-에 침입하여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다. 동영상 이 촬영되어 배포되었고, 관련자의 발언으로 인해 왜곡된 인식 문제가 알려졌다. 그러면서 미래자동차 비자금 문제와 대권 후보의 결탁 문제 그리고 그 중재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거머쥐려는 책략이 밝혀지기에 이른다.

〈내부자들〉은 두 차례 동일한 기자 회견과 이를 무마시키려는 두 차례 반박 기자 회견을 통해 하나의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 준다. 동시에 폭로 기자 회견이 필요한 이유를 반복과 그 변주를 통해 보여 준다. 첫 번째 폭로 기자 회견이 실패했다고 해도, 반복되는 폭로 기자 회견은 진실에 접근하는 길을 열 것이라는 전언도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점은 클로징 시퀀스이다. 이 시퀀스에는 몇 가지 씬들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몰락을 보여 주는 씬으로 장필우의 도피 씬이 있다. 장필우는 재기를 꿈꿀 수 없다는 절망을 누르지 못하고 국회의사당이 내려다보이는 한 밀실에서 고독하게 소주를 마시고 있다. 그 이상의 결말을

보여 주지는 않지만, 장필우의 말로는 아마도 자살일 것이다.

장필우가 바라보는 창 너머에는 국회의사당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장필우는 그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였으며, 그다음 단계인 청와대 입성을 눈앞에 둔 최고 권력자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커녕 결국 감옥에 수감될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멀어지는 국회의사당의 쇼트는, 다가가는 청와대 쇼트와 대비를 이룬다. 두 쇼트는 구조적으로도 대칭을 이루고 있고, 카메라로 포착되는 욕망의 거리와 움직임에서 대조를 이룬다. 미래자동차 불법 자금 수주로 인해 장필우는 대통령을 향한 꿈을 접어야 했는데, 이때 욕망의 방향과 카메라의 움직임은 국회의사당에서 나와 초췌한 자신으로 향하고 있다.

반면 이강희가 바라보던 청와대 씬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이강희를 지나 청와대로, 그리고 그러한 청와대가 보이는 광경 내에 욕망의 접근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강희의 꿈과 장필우의 욕망이 하나의 궤도로 이어져 있다고 할 때, 청와대로 다가가려는 이강희-장필우-오현수의 꿈과 욕망은 결국 국회에서 멀어지는 세 사람의 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

클로징 시퀀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씬은 출옥한 안상구가, 변호사 개업을 한 우장훈을 찾아오는 장면이다. 그들은 오랜 회포를 풀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옥상으로



국회에서 멀어지고 마는 장필우의 처지



청와대로 다가가고자 하는 이강희의 욕망



아직, 저 멀리 있는 국회의 꿈



다시, 화면 내로 다가오는 국회의사당

멀리있음과 가까이 다가감

향한다. 그곳에서는 강 건너 여의도가 보이며, 그곳에는 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안상구는 우장훈에게 국회 진입에 대한 운을 떼다. 우장훈 자신 역시 장필우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마무리되면 카메라 화면은 점점 국회의사당을 향해 전진한다. 무빙 카메라는 강과, 거리, 그리고 시간 너머에 있는 어떤 광경을 그려보려는 듯하다.

6. <내부자들>에 나타난 반복의 이유와 변주의 효과

<내부자들>은 다양한 반복 구도를 적용하고 그 반복 효과의 변주를 통해 숨은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는 영화문법을 빈도 높게 시전한 작품이었다. 공간의 반복은 밀실의 반복에서 확인된다. 피해자를 고문하는 밀실이라는 공통점을 활용하여, 가해자인 안상구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구조와, 피해자였지만 결국 다시 복수를 꿈꾸며 가해자의 위치로 올라서려는 욕망을 보여 주고 있다.

두 밀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장소로 제시되었지만, 두 밀실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했고, 그러한 공통점이 반복되면서 차이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폭

력 조직의 우두머리(안상구와 조 상무)가 장악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행되는 고문이 잔인했지만, 그 고문은 실질적으로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취조와 상대를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처벌로 나뉘어 자행된 점이 동일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네 개의 조합이 필요했고, 그 조합에서 어떤 경우에는 안상구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된 역할로, 어떤 경우에는 안상구/조상무가 모두 가해자(고문자)라는 유사한 역할로 등장해야 했다.

이러한 조합은 안상구가 결국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그리고 내부자에서 고발자로 변전하는 이유를 함축한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상해를 멈추고 싶었던 은밀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고, 그 욕망을 거두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처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벌은 처벌 대상자에서 처벌 집행자로 변한 안상구에 의해 한 번 더 일어난다. 안상구는 교도를 탈출해서 이강희에게 접근했고, 그의 팔목을 끊어 버린다. 손이 칼이 되고 손이 펜이 되어 사람을 상해했다면, 그 칼이 되었던 손과 그 펜이 되었던 손이 모두 제거되는 유사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야 한다. 이 두 번의 처벌은 사적 처벌로서 문명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행위이지만, 안상구에게는 자신이 당한 처벌의 되갚음이자 법적 처벌과 쌍을 이루는 반복적 처벌의 한 형태이다.

<내부자들>은 안상구의 처벌과 쌍을 이루는 또 하나의

처벌을 준비한다. 그것은 별장 성 향응 접대 동영상의 채록과 유포였다. 그리고 내부자였던 우장훈이 그 실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다시 기자 회견장에 다가온다. 안상구가 기자 회견을 위해 등장하고 걸음을 옮기고 단상에 오르고 기사를 향해 폭로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장훈도 그대로 시행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못 달랐다.

반복된 기자 회견(내부자의 폭로라는 측면에서)으로 인해 폭로와 고발이 지니는 의미가 달라졌다. 정치 깡패 안상구의 기자 회견이 그의 신분과 과거 이력으로 인해 모조리 허위로 취급되면서 현실에서 별다른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폭로자인 안상구가 사회의 질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검사 우장훈의 기자 회견은 그의 신분과 현재 이력으로 인해 거의 사실로 인정되면서 현실에서 대단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내부자들〉의 영상 미학적 문법에 의거한다면, 앞(오프닝)과 뒤(클로징)에 위치한 대칭적 두 사건은 반복에 의해서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영향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반복의 효과가 변수의 차이를 동반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공간과 그 공간을 점유한 이들의 행동은 결국 외부와 내부라는 서로 다른 측면, 고발자와 피고발자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반복되었고, 그러한 반복은 때로는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내외 간 차이의 무화와 고발/피고발의 의미상 아이러니를 생성했고, 때로는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현재 사회에서 그리고 영화 미학적으로도 반복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생성했다.

우장훈의 폭로와 그 결과는 안상구의 폭로와 상반된 결과가 왜 서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안상구의 손목 절단과 이강희의 손목 절단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처벌에 대한 유사성과 그 욕망을 보여 준다는 결말은 일반인이 나누고 있는 지성 대 야만, 선 대 악, 합법 대 불법의 기준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다. 〈내부자들〉은 공간의 반복과 그 안에서의 변수를 통해, 이러한 자문과 재고

는 이 영화의 숨은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내부자들〉에서 밀실은 그 자체로 공간 구도가 비슷했고 그 안에서 자행되는 고문 방식 역시 일견 흡사해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서로 다른 조합으로 인해 〈내부자들〉에는 크게 네 군데의 장면에서 서로 다른 공간과 의미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안상구와 조 상무,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격, 취조와 처벌 등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투영되었고, 두 개의 쌍으로 나뉘어서 각각 상이한 의미를 생성했다. 이러한 의미의 중심에는 폭력의 반복성이 숨기고 있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경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공간을 지배하는 빛과 어둠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안상구의 아지트와 조 상무의 안가는 기묘하지만 의미 있는 대조도 함께 더하고 있다.

안상구와 조 상무가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안과 밖이 차단된 공간에 머무른다면, 이강희와 장필우는 빛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공간은 하나는 청와대, 다른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마주 보는 곳이다. 이강희는 오만한 그의 성격답게 청와대를 내려다보는 곳에서 그곳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카메라는 그의 집필실에서 바라보이는 청와대로 접근하면서, 그가 갖은 공간, 그가 찾는 방법, 그가 구하는 위치가 모두 권력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심지어 그는 그 권력과 그 공간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이다.

그와 함께 장필우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상의 권력에 접근한 상태이다. 그는 집권당을 노리는 여당의 대선 주자였다가, 결국 대권 후보로 격상된다. 하지만 그의 꿈은 물거품처럼 흩어지는데, 그때 그가 머무는 공간은 국회의사당이 내려다보이는 좁은 밀실이다. 그의 행방을 찾는 사람을 피해 숨어야 했던 그는, 결국 국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처한다. 카메라는 그의 시선을 지나 국회에서 물러나야 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정치적 권력의 최정점이자 핵심 코스

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공간에 근접할 수 있었을 뿐, 결국 최종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말은 사실 〈내부자들〉이 현실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많은 이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정점에 도달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일치의 여부가 아닐 수 있다. 권력이 접근하는 방식과 그 권력이 무너지는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더 현실에 근접한 결론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화면의 물러남과 다가감의 대비는, 공간의 유사성과 유사한 공간의 거리감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의 부침 현상을 보여 준다. 권력이 승하고 무너지는 현상은 그 자체로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이며, 그러한 현상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는 계기이다. 그렇다면 〈내부자들〉의 클로징 시퀀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카메라의 전진(다가감)은 강 건너 존재하는 의사당의 실체와 결부되면서, 권력의 부침이 일어나는 그다음 단계의 단면과 그다음 사람의 계기까지 보여 줄 수 있다. 이것 역시 장필우가 떠나고 우장훈이 그다음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물러남과 다가감의 차이를 내포한 반복이었던 셈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수정, 「악역(惡役)의 캐릭터 특징 분석: 흥행한국영화 〈암살〉, 〈내부자들〉, 〈베테랑〉,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4(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8, 42~56쪽.
- 서은현·배일현, 「애니머그럼 유형으로 보는 영화 캐릭터들의 갈등에 대한 연구: 〈덕혜옹주〉, 〈내부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6(3), 한국문화산업학회, 2026, 177~186쪽.
- 이대현, 「기자에 대한 영화의 두 시선 〈내부자들〉과 〈1987〉」, 『신문과 방송』 57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104~107쪽.
- 이지영, 「윤태호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확장성 연구: 〈미생〉 〈내부자들〉의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78쪽.
- 이지호, 「사회고발 장르 영화의 의미구성과 사회 문화적 의미: 영화 〈내부자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7, 1~99쪽.
- 정민아,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범죄영화 장르의 진화와 폭력의 서사화 방식」, 『현대영화연구』 12(1), 현대영화연구소, 2016, 107~131쪽.
- 조수진, 「영화텍스트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속 여성: 영화 〈추격자〉, 〈소셜포비아〉, 〈내부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 16(6), 한국영상학회, 2018, 45~57쪽.

Abstract**A study on the meaning of aesthetic repetition
structure and variation in <Inside Men>**

Kim, Nam-Seok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movie <Inside Men>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or its relevance to real politics. Many people have been shocked by the col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nd business world and the media, scenes of sexual favors, or the scenes of political gangsters and prosecutorial power depicted in the movie <Inside Men>. As a result, <Insiders> remained a film with a very high response from audiences, but the inherent approach to this text had to be put on hold. In other words, research on the video aesthetic value of <Inside Men> or the meaning of film grammar has not been conducted in dep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nd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cinematic personality of <Inside Men>, which have remained limited so far. <Inside Men> emerged not only as a text that attracted attention because it was a reflection of Korean politics or reality, but also as a film work that evoked deep sympathy by appropriately utilizing the effect of repetition as a unique aesthetic structure.

Keywords <Inside Men>, sexual entertainment, repetition, variation, composition
